금주의 법구–〈유행경〉
천하고 귀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천하고 귀함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2월 28일)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약진하는 캠퍼스포교 '쉼·봉사' 니즈 주요

성공한 대학불교동아리 비결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미래로 평가 받는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는 캠퍼스 포교가 약진하고 있다. 전국 각 대학 불교동아리들이 '쉼'과 '봉사' 등 대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홍보방법을 도입하고 사찰의 지원이 이어지며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춰 불교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대 불교학생회(회장 김승회)는 신입회원으로 63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까지 전남대 불교학생회는 회원이 5명에 불과했다. 전남대 불교학생회의 부흥은 새내기들이 쉴 수 있는 쉼터 형태의 동아리방을 새롭게 만든 것이 원동력이 됐다.

이와 함께 전남대 불교학생회는 지도법사 송광사 교무국장 정응 스님 등 송광사 스님들과 자비신행회를 비롯한 지역신행단체와 연계한 봉사·수행활동도 기획했다. 2~30만원가량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우체통을 비롯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공부방을 고쳐주는 공부방 리모델링, 다문화가정 돕기 등도 함께 소개했다.

김승회 전남대 불교학생회장은 "편히 대화를 나누고 쉴 수 있도록 쉼터처럼 동아리방이 지난 겨울방학 리모델링 됐다. 학업에 지친 학우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신입회원 모집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도 동아리에서 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 송광사에서 지역사찰을 연결해줘 장학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회원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여자간호대 불교학생회(회장 김가언)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신입회원이 대폭 증가했다. 서울여자간호대의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봉사활동을 동아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김가언 서울여자간호대 불교학생회장은 "올해부터 조계종 산하 보현데이케어센터를 동아리 지정 봉사처로 협약을 맺었다.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고 신입생들에게 이를 중점 설명했다"며 "이와 함께 간호대 내 기수, 학번을 탈피하여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이별로 소모임을 묶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와 명상 등도 함께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여자간호대의 경우 예년과 달리 신입회원 전원이 동아리회비를 내고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대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접근과 함께 선배들과 인근 사찰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경우 지난해 회장과 부회장 2명만이 남아 폐쇄 위기였지만 선배들과 지역불교계의 장학금 전달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올해 12명이 새로 가입했다. 현재 40여 명의 회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성신여대 불교학생회도 선배단과 방학기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동아리박람회 외에도 새내기 OT를 비롯한 행사에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올해 10여 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했다. 제주교육대의 경우도 선배단의 노력으로 대불련 제주지부가 만들어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며 신입생 73명이 가입하기도 했다.

박유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신입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동아리 내 문화"라며 "선후배를 넘어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학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인맥구축도 될 수 있는 활동 등이 도움이 된다. 선배단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학생 포교는 사찰의 청년포교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도법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찰과의 결연과 정기적인 대학생 법회 및 템플스테이 개최, 개별 불교동아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 조직 등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63명 가입 성과
서울간호대 23명 가입
쉼 공간, 수평문화 조성
사찰·선배 지원도 효과



적멸의 길 나선 '염다래'의 시자 조주의 끽다거(喫茶去)를 염다래(拈茶來)로 이끌어낸 경봉 선사의 다풍을 이은 통도사 극락선원장 고원당 명정 스님이 3월 25일 적멸의 길로 떠났다. 법랍 60년, 세수 77세. 스님은 경봉 선사를 시봉하며 가르침을 받고, 전국 선원을 다니며 선풍진작에 평생 힘써왔다. 특히 경봉 선사 설법집과 서간집, 사진집 등을 발간하며 스승 선양에 앞장서기도 했다. 사진은 28일 통도사서 엄수된 영결식에서 명정 스님의 후학들이 법구를 이운하는 모습. 통도사=하성미 기자

종회의원 직능대표 '나눠먹기' 강화되나

[분석] 조계종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 입법활동

방대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
해석 놓고 20년 넘게 논란된
직능대표 '전문성' 조문 삭제

행정 편의성 담보 예상되지만
계파 간 나눠먹기 우려도 나와
총무원장 단독후보 땐 '무투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출과정에서 꾸준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문성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직능대표의 '계파 간 나눠먹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3월 26일 개원한 제214회 임시회서 2건의 종헌 개정안과 18건의 종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종회 개원 전에는 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이 주목받았으나 끝내 철회되면서 방대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선거법 개정안은 긴 토론 끝에 가결됐다. 표면적인 개정취지는 사찰분담금 체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보다는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의 변화가 눈에 띈다.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출과정에서 요구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라는 조문이 삭제됐다. 이로써 1994년 개혁회의가 제정한 직능 분야별 전문성은 더 이상 법적 테두리에서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전문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선출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직능대표 선출의 행정 편의성이 담보된다. 반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을 거쳐 직능대표들을 선출해온 '계파 간 나눠먹기'가 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축조심의가 끝난 상황에서 정범 스님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3독회 개정안 가부 의결단계로 넘어가 별도의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20년 넘도록 문제로 거론된 내용이 단 한마디 논의 없이 삭제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종회의원 A스님은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문 삭제에 종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종회의원 B스님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공정한 선출을 기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시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말사 주지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내용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입후보자 인원과 별개로 투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의원 권한 확대 법안 '전부 무산'

이번 임시회서는 종회의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눈길을 끌었지만 전부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종회의원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3권 분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담겼다는 지적에 따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관련 법안으로 △종헌개정안(교역직 종무원 겸직 허용) △호계원법 개정안(종회의원 변호인 참가 허용) △직영사찰법 개정안(직영사찰 관리인 겸직 허용) △중앙종회법 개정안(매월 의정활동비 지급) 등이 발의됐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종회의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는 점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법안은 토론과정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자 발의자들이 철회했다.

이처럼 종회의원 권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되자 법안 발의 시 신중을 기하자는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우 스님은 "많은 의원스님들이 발의에 동참하셨는데 빠른 철회 입장에 웃을 일이 아니다. 앞으로 서명할 때 깊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교구중심제 일환으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안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유관 종법개정안들은 이월됐다. 교구특별분담사찰의 주 취지인 승려복지 재정과 신도시 포교 거점 마련 등이 본사별로 차이가 있고, 특별분담사찰의 교구 목적분담금 납부와 본사주지의 당연직 교구종회 의장 등에 지적이 잇따랐다. 중앙종회는 28일까지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비롯해 각종 인사안,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윤호섭 기자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께서 부처님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해 모신 금강계단을 수계 증명단으로 삼고, 계율전수를 통해 부처님 정법의 맥을 이어 온 계율근본 도량입니다.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 지혜광명을 잇고자 기해년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인연공덕 되소서.

보살계 일정
입재 2019년 04월 09일(음. 3. 5) 화요일
회향 2019년 04월 11일(음. 3. 7) 목요일

●동참금 5만원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 오전 8시 ~ 9시
●접수처 화엄전 ●전화 055) 381-1288 팩스 055) 372-7010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